

# 망각의 이중주, 사라짐과 은폐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슨렘>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읽기> <인텔리겐차>의 공저자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친구들은 그것을 나의 무관심 탓으로 돌린다. 늘 뒤늦게 “아, 맞아, 그랬었지” 하면 “그러게 제발 관심 좀 가져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정 처리 깔끔한 ‘쿨’ 한 인간인가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나는 뒤끝 없는 인간형을 대체로 싫어한다. 자기만 좋기 때문이다. 자기만 잊어버리고, 자기만 마음 편해지고, 자기만 해방되는 것 같아서다. 요컨대 나의 기억력은 나조차도 종잡을 수 없다. 대체로는 ‘쿨함’으로 오인되리만치 뭔가를 잘 잊어버리지만, 남에게 상처는 줄지언정 ‘뒤끝은 없다’는 인간을 미워하는 동시에 나의 ‘질긴 뒤끝’에 스스로 지쳐 떨어지기 일쑤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단순함과 뻔뻔함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편이다.

여하튼 천성적으로 좋지 못한 기억력을 기억에 대한 이론공부로 벌충해 보자는 의지의 소산이었을까. 한때 ‘기억 이론’이란 것에 비상한 관심을 둔 적이 있었다. 앙리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 영역본을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김질하듯 읽어나가며 나는 뇌가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는 데 얽힌 베르그송의 길고 난해한 설명을 정성껏 독해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억은 내게 ‘두뇌’라든가 ‘저장’과 같은 공간적 개념이 아닌 ‘시간’과 더불어 사유되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억을 뇌 ‘안’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계를 상자 안에 넣어 둬으로써 시간을 가둘 수도 있을 터. 기억은 ‘어디에’ 보존되는가라는 질문은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 제기된 질문임을 알아차린 것도 그즈음이다.

소위 ‘기억상실증’은 기억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생긴 문제일 뿐 기억 자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설령 기억은 하지 못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진 것은 없다.’ 죽기 일보 직전 겨우 살아난 생존자들은 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험을 한다고 증언한다. 과거는 단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존재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역시 ‘관심’이 문제였다. 좋지 않은 기억력을 안 좋은 머리 탓으로 돌리며 난 머리가 나쁘니까 자책할 수 있었을 때 문제는 차라리 단순했다. 그저 부족한 내 두뇌 용량을 아쉬워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시간과 더불어 쉬쉬는 ‘영혼’의 모습을 하고 내게 성큼 다가선 이후에는 뭔가 잊어버릴 때마다 난 그 ‘뭔가’에 대한 나의 냉



정함과 무관심에 울적해지곤 했다. 그러다가도 어느새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어진 것은 없다'는 믿음 덕택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하랄트 바인리히의 《망각의 강 레테》는 서양문화사를 가로지르는 기억과 망각의 모티브를 분석해 내고 있는 책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철학자, 예술가만 해도 수백 명을 족히 넘는다. 유럽에서는 크게 보아 "암기할 수 있는 지식만이 우리의 지식이다"라는 모토로 문화에 있어서의 기억술을 중시한 고대와 중세가 지난 후, 계몽주의 시기에 이르러서 망각(술)의 특권이 상승한다. 좀처럼 자신의 학문에 관련된 일을 잊어버리지 못해 식사하는 방법조차도 까먹기 일쑤인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나 역시 철학적 사유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일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계몽철학의 선구자 칸트, 그리고 병적인 기억력, 즉 불망증으로 인해 제대로 잘 수 없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보르헤스의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주인공) 등의 예를 통해 저자는 '기억의 저주'라는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 의하면, 기억력보다는 판단력이 중시되는 시대, 암기보다는 발명이 각광받는 시대에 이르러 현대인은 기억의 부담스런 짐을 벗어버리고 기꺼이 '망각의 축복'에 몸을 맡기려 한다. 특히 오랜 기억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심지어 병들게 하는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만큼 잘 말해주는 예도 드물다. 억압되어 잊혀진 것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되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가정은 망각에 관한 문화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억눌린 무의식을 다시 의식으로 불러내어 치료한 이후에야 그 잊혀졌던 것은 '회해 조정을 받은 망각'이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저자는 "놓아 버리고 잊을 수 있는 능력"의 현대적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키면서 글을 맺어 간다. 예컨대 학문의 분야만 놓고 볼 때에도 "완벽한 자료 정리라는 순진한 윤리의식에서 제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공되는 정보량에 짓눌려 모두 더 이상 연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진정 필요한 기술은 모으고 가두는 기억술이 아닌 버리고 삭제하는 망각술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의 논리는 망각의 해방적 기능으로 손쉽게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기억력도 암기력도 좋지 못한 내가 잘 잊

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저자의 전언에 별다른 감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굳이 망각에 이르는 기술을 연마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나는 시간과 함께 망각으로 난 길을 충실히 걷고 있지 않은가. 거기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불러내 주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망각의 대로에 여러 갈래 샅길들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낀다.

내 곁에는 기억되지 못함 그 하나만으로 심지어 죽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잊혀질 것이다. 그런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자. 하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지만 부당하게 지워지고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만은 나는 잊고 싶지 않다. 기억되지 못하도록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내는 일. 그것을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도 좋고, 의문사 진상규명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이라고 해도 관계 없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망각의 편에서 있는 듯 보이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아무것도 없어진 것은 없다.' **추천**

《망각의 강 레테》 하랄트 바인리히 지음 | 백설자 옮김 | 문학동네 | 414쪽 | 값 12,000원

